

200자 안내

새롭게 하소서

고은아 편

CBS 라디오의 신앙간증 프로그램 「새롭게 하소서」를 통해 전파를 탔던 기독교인의 신앙고백 47편을 동 프로그램의 진행자 고은아씨가 함께 묶었다. 모두 3부로 나누어 「부르시는 하나님」「짜매시는 하나님」「함께 하시는 하나님」등 유사한 내용의 글들로 갈라 엮었다.

홍성사 / A5신 / 208면 / 3000원

주식과 채권의 성공적 투자법

김경용 편

알기 쉽게 도표식으로 풀이한 주식·채권 투자 안내서. 증권시장의 개념에 대한 이론적 설명과 함께 주식투자·증권투자를 시작하기 전에 필요한 기초지식, 실제 투자에 있어서의 구체적인 전략 등을 자세히 다루고 있다. 부록으로 '증권관계기관 및 증권회사 일람표'와 '주식용어 해설'을 실고 있다.

서림문화사 / A5신 / 248면 / 3000원

왕비와 후궁의 갈등

李炫熙 著

국사학자 이현희교수(성신여대)가 5천여년에 걸친 한국여성들의 끈질긴 역사를 조명한 「한국여성 오천년사」시리즈 제1권. 신화시대부터 고구려·백제·신라시대까지, 남성 못지 않은 지혜와 슬기로 역사의 주인공 역할을 한 여성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明文堂 / A5신 / 306면 / 3000원

노피곰 머리곰

고원 작

저자가 1986년 7월 초까지 약12년 동안 미국, 캐나다, 일본의 신문이나 잡지에 발표한 글들을 모은 산문집. 美캘리포니아대 교수인 저자는 수필, 평론, 논설, 수상, 기행문 등을 통해 민족과 조국, 고향에 대한 그리움, 믿음, 소망, 사랑을 그리고 있다. 전예원 에세이선집 14.

전예원 / A5신 / 332면 / 3900원

폐춘

韓勝源 著

남도의 섬과 해변을 무대로 한 토속적 세계를 즐겨 다뤄온 작가의 창작소설집. 한때 외설시비를 불러 일으켰던 「폐춘」을 비롯하여 「안개바다」「별 받는 사람들」「날새들은 돌아올 줄 안다」 등의 중편을 수록하고 있다. 설화적 공간 속에 이데올로기의 무용성과 삶의 척박함, 역사의 고통과 시련을 끌어들이고 있다.

東亞 / A5신 / 365면 / 3800원

위토스

이윤기 작

서구문화의 근원이라 할 수 있는 그리스 신화를 소설화한 이색적인 작품. 1부 「신들의 시대」, 2부 「영웅의 시대」, 3부 「인간의 시대」 중 제1권이 출간되었다. 태초의 혼돈 속에서 우주가 탄생하고 신들이 근친상간과 근친살해를 통해 태어나기까지의 과정이 흥미롭게 서술되어 있다. 시공을 초월한 자유분방한 상상력의 세계를 엿볼 수 있다.

고려원 / A5신 / 291면 / 3500원

입술의 韓國學

이규태 저

조선일보에 연재되는 「이규태 코너」를 단행본으로 엮은 책. 동서고금을 넘나드는 해박한 지식과 구수한 문체의 칼럼집이다. 그날그날 일어난 일을 빌미로 해서 잡다한 역사적 사건을 중흥으로 누비며 독자의 의식을 넓혀 주고 있다. 1장 「고스톱의 한국학」, 2장 「신데렐라 컴플렉스」, 3장 「위하여!」, 4장 「아이리브 유 분석」, 5장 「콘돔 광고」로 이루어져 있다.

기린원 / A5신 / 356면 / 4000원

미덕의 불운

싸드 작 / 이형식 역

대담하게 인간의 내면에 깃든 악마적 성격과 변태성욕을 파헤쳐 많은 논란을 일으켰던 싸드후작의 대표작. 한때 음란소설로 낙인찍혀 판금당하는 불운을 겪기도 했지만, 현대에 와서 시대를 앞지른 선각자로 재평가받고 있다. 모든 조직, 국가, 이념에 반항하고 작품 속에 절대자유를 모색하던 이단아의 정신세계가 역력히 드러나 있다.

한울문화출판 / A5신 / 185면 / 3000원

도스토예프스키의 宗教

A.B. 김슨 저 / 李景植 譯

오스트레일리아의 멜본대학 철학교수였던 저자가 탐구한 도스토예프스키의 신앙세계.

도스토예프스키는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으며, 그의 신앙에 러시아 전래의 토속적 특징이 깃들어 있었다. 일견 모순된 듯한 도스토예프스키 소설의 작중 인물들의 신에 대한 태도가 궁극적으로는 신에 대한 헌신을 나타낸다는 사실을 구체적인 작품분석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

現代思想社 / A5신 / 319면 / 4500원

예술 그리고 예술

안준배 저

문화비평가이며 목사인 저자가 70년대 문화비평집 「세실로 가는 길」을 펴낸데 이어, 이 책에서는 80년대의 연극·뮤지컬·영화·대중가요·기독교문화를 조망했다. 80년도에 들어 국내에서 공연된 각종 연극과 영화·가요 등을 통해 오늘날 우리 대중문화의 특징을 파헤치는 한편, 그 속에 나타난 기독교문화의 위상정립을 꾀하고 있다.

예전사랑 / A5신 / 432면 / 5800원

社會·行動科學 研究方法의 基礎

F.N. Kerlinger 著 / 高興化 譯

심리학, 사회학, 교육학 등을 비롯한 사회 및 행동과학 전반에 관한 일반적인 연구내용과 통계학·측정이론·연구설계·최근 방법론으로 크게 개발되고 있는 重多變因 방법의 기초에 이르기까지 상세히 설명한 이론서. 1부에서 5부까지는 행동연구의 개념적 수학적 기초사상을, 6부에서 10부까지는 설계·측정 및 관찰에 관한 문제와 자료수집 문제를 다루고 있다.

星苑社 / B5 / 926면 / 15000원

韓國 現代文學의 探究

黃松文 編

현대문학의 대표적 작품을 수록하고 이를 해설한 책. 1부 작품편에 황순원, 안수길, 김동리, 이범선, 유주현, 전우희, 하근찬, 윤홍길의 대표작을 실고 2부 해설편에선 이를 해설하고 있다. 해방후 우리 소설이 어떤 길을 밟아왔는가를 구체적인 작품 읽기를 통해 알 수 있도록 했다. 대학교의 '현대문학강독'의 교재로 적합한 형태의 책이다.

志成文化社 / A5신 / 321면 / 4000원

그리운 나라

장석주 작

시와 비평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장석주의 시집. 1부 「그리운 나라」, 2부 「서울길」, 3부 「자화상」에 마흔네편의 시를 수록하고 있다. 거대한 문명과 왜소한 자아 사이의 불편한 만남, 두려움과 비애로 뒤엉킨 비

관주의자의 삶에 대한 비극적 열정이 시집을 관류하고 있다. 현실에 대한 거부와 애착이 공존하며 불안정한 균형상태를 이루고 있다. 청하 / A5신 / 96면 / 3000원

현대비즈니스 설득학

堀川直義 著 / 朴達圭 譯

현대를 커뮤니케이션의 시대라 부르고 있듯이 비즈니스에 커뮤니케이션이 차지하는 비중이 날로 높아지는 실정. 진정한 설득력이란 단순한 말재간이 아니라 지도력·교섭력·이해력의 종합에 의해 형성되는 복합적인 능력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책이다. 화법의 비결부터 문장 작성법에 이르기까지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한국산업훈련연구소 / A5신 / 211면 / 3000원

한국 명시의 이해와 감상

제해만 편

교과서에 실린 시를 중심으로 작가소개와 해설을 덧붙인 책. 고시·향가·고려가요·고시조·현대시조·창가가사·신체시·현대시 순으로 엮었다. 중고교 학생을 대상으로 시에 대한 이해를 돕고 국어학습 전반에 흥미를 갖도록 내용을 꾸몄다. 소개된 시마다 소재, 주제, 구성, 출전, 이해와 감상이 수록되어 있다.

대일출판사 / A5신 / 268면 / 3000원

韓中文學比較의 研究

丁奎福 著

한국 고전문학 연구에 있어서 필수적 작업인 韓中문학의 비교연구. 제1부는 「한국문학과 중국문학」으로 비교적 기초적인 문제를 다루었고 제2부는 설화성을 띤 단편의 연구를, 제3부는 소설작품의 비교연구를 시도하고 있다. 인도·중국·한국·일본으로 이어지는 동아시아문학이 서로 어떤 관련을 갖고 있는가를 연구한 저서이다.

고려대학교출판부 / A5신 / 280면 / 7000원

中國中世胡漢體制研究

朴漢濟 著

「胡漢體制」라는 생소한 명칭이 가리키는 시대는 중국 魏晉南北朝시대. 이 시대는 거대한 漢帝國이 무너진 다음의, 난세중의 난세로서 지배자(胡)와 피지배자(漢) 사이에 끊임없는 투쟁과 타협이 계속된 시대였다. 양자는 몇 백년의 접촉 결과 새로운 공존의 질서를 확립했는데, 저자는 이를 「胡漢體制」라 이름 짓고 당시의 격동하는 시대상을 연구하고 있다.

일조각 / A5신 / 288면 / 6000원

이브수첩

우선덕 작

섬세한 감성과 감각적인 문체의 여류소설가 우선덕의 장편소설. 17세 소녀의 청순한 사랑을 소재로 한 전형적인 하이틴 소설이다. 속도감 넘치는 문장으로 십대의 우정과 사랑, 방향을 그리고 있다. 한 소녀가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의 체험을 통해 성숙해간다는 내용을 담은, 부담없이 읽을 수 있는 소설이다.

중앙일보사 / A5신 / 322면 / 3300원

퍼스컴인터페이스레이닝

김응목 편

최근 우리 생활에 깊숙이 파고드는 마이크로 컴퓨터의 실체를 원리적으로 생각해보고 직접 만들어보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구성된 책. 기본이 되는 디지플 회로의 기본사항을 정리하여 마이컴의 구성과 명령, 그리고 인터페이스에 대한 설계기술과 메모리의 증설 등을 직접 실험해보고 응용기술을 습득할 수 있게 하였다.

·집문당 / B5 / 222면 / 4500원

시 창작강의

강우식 · 박제천 저

중견시인 두 사람이 엮은 시창작 입문서. 한 사람의 시인으로서, 시를 써오면서 끊임없이 부딪쳐야 했던 시창작의 여러 문제점들을 어떻게 극복해왔는가를 체험적으로 밝히고 있다. 교과서식 시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한편 한국의 명시와 세계의 명시 해설을 실어 시를 보는 안목을 넓혀주고 있다.

작가정신 / A5신 / 306면 / 4500원

보통고릴라

주완수 작

서양화를 전공, 한때 민화와 판화에 몰두하다 현재는 미술운동과 출판운동을 결합시키려는 시도로서 만화작업에 전념하고 있는 작가의 이야기 그림집. 고릴라시리즈를 통해 본격적인 정치풍자만화를 시도하고 있다. 우리 시대의 아픈 현실을 '슬픈 웃음'에 담고 있다. 현실의 이면을 꿰뚫는 寸鐵殺人の 기지가 번득인다.

세계 / A5 변형 / 180면 / 2500원

아리스토텔레스의 哲學

趙要翰 저

서양철학의 대부나 다름없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을 총체적으로 연구한 저서. 모든 학문적 인식에 앞서 갖추어야 되는 도구로서 논리학을 수립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업적이 드러나 있다. 이 책에 실린 9편의 글들은 하

나하나 독립되면서도 논리학을 위시하여 이론학, 실천학, 제작학의 세 분야를 역사적 맥락에서 검토하고 있다.

經文社 / A5신 / 244면 / 4300원

韓國語 語源研究史

姜憲圭 저

공주사범대학 교수인 저자가 15년에 걸친 각고의 노력 끝에 낸 우리말의 어원연구사. 기록에 나타난 모든 국어 어원연구의 결과를 섭렵하고 이를 통시적으로 정리·해설하고 있다. 우리말의 어원에 관한 최초의 기록이나와 있는 중국의 史籍부터 최근의 학문적 성과에 이르기까지 상세하게 검토하고 있다.

集文堂 / A5신 / 357면 / 6000원

이해를 위한 신약성서 연구

로버트 G. 헐버 저 / 김영봉 역

신학교 해석학 교수인 저자의 독특한 신약성서 연구서. 지식보다는 성서 자체의 이해를 강조,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각 장마다 신약성서 읽기의 초보적인 자료를 제시하고, '이해를 위한 읽기'라는 방법론을 통해 독자의 성서 이해에 도움을 주고 있다.

컨콜디아사 / A5신 / 253면 / 4000원

만성병시대

오장근 저

서양문물의 유입과 함께 우리의 식생활에도 큰 변화가 일고 있다. 저자는 우리 주위에 만연하고 있는 서양식 식생활이 만성병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조상 대대로 내려온 전통적인 식생활이야말로 건강에 제일 좋다고 말한다. 만성병을 치유하는 약성식품과 비타민, 미네랄을 공급하는 식품에 대한 설명도 흥미롭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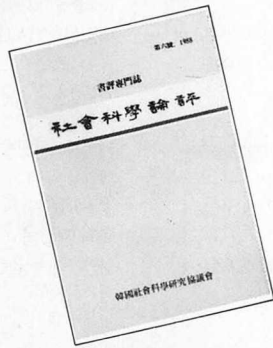
茲山 / A5신 / 330면 / 3500원



학술지

社會科學論評 제6집

韓國社會科學研究協議會 편



사회과학 분야 11개 학회의 연합 연구협의회로 1976년 창립된 한국사회과학연구협의회(회장 홍승직)의 연회지 「社會科學論評」 제6집이 발간됐다.

우리나라 사회과학계의 거의 유일한 본

학제의 책

가게·물건·상호·상품 이름연구

김윤학 외



거리의 간판이나 각종 물건과 상품의 이름 따위에서 얼마나 많은 외국말이 쓰이고 있는가를 실증적으로 조사, 분석한 「가게·물건·상호·상품 이름연구」가 발간됐다.

「국어순화와 말글정 책을 위하여」라는 부

이색출판

달라진 저승

김광림 작 · 연출



「칠수와 만수」, 「한씨연대기」 등 일련의 창작극 공연으로 성가를 얻은 극단 연우무대가 '사진으로 보는 연극'을 표방한 새로운 형태의 대본집 「달라진 저승」을 내놓았다.

태평천국의 난을 일으킨 洪秀全의 혁명

격 서평전문지로 1982년 제1집이 발간됐던 「社會科學論評」은 서평과 함께 서평의 대상이 된 해당저자의 '답변'을 실는데, 이번에도 8편의 서평과 4편의 '답변'을 수록했다.

서평으로는 이호철 저 「朝鮮前期農業經濟史」를 이영훈이, 오금성 저 「中國近世社會經濟史研究」를 최갑순이, 강대기 저 「현대도시론」을 민경희가, 박환기·박세일 공저 「韓國의 貨金構造」를 조우현이, 안해균 저 「韓國行政體制論」을 이성덕이, 정진석 저 「韓國現代言論史論」을 박권상이, 김승흠·김광웅·안병만 공저 「韓國選舉論」을 조중빈이, 그리고 이홍우의 영문저서 「Living, Knowing and Education」을 이돈희가 서평한 글을 모았다. 이에 대한 저자의 '답변'으로는 오금성, 강대기, 안해균, 정진석의 글을 함께 실었다.

한국사회과학연구협의회 / A5신 / 156면 / 비매품

제 아래, 원래 국어순화추진회 토론회의 주제논문으로 발표했던 「가게·물건 이름 연구」(김윤학)를 비롯해 「상호에 나타난 우리말의 실태에 관한 연구」(김지권), 「상호에 나타난 우리말 연구」(안유봉), 「상품이름연구」(박정숙) 등 모두 4편의 논문을 함께 묶었다.

4편의 논문이 모두 실증적인 조사를 통해 비근한 일상생활 속에 침투한 외국말의 광범한 분포현상을 드러내보임으로써, 특히 어문정책의 입안에 자료적 도움이 될 만하다. 아울러, 그동안 우리말이 외국말에 많이 물들어 있다는 어렴풋한 느낌을 사실로 확인시켜 우리 국어생활의 실태에 반성을 촉구하고 있기도 하다.

각 논문의 끝에는 해당 연구자가 조사한 상호, 상품, 물건의 이름들을 부록으로 정리했다.

과학사 / A5신 / 262면 / 4000원

과 그 혁명의 타락을 내용으로 한 '대본'과 공연장면의 '사진'을 유기적으로 편집한 이 책은, 출판이라는 인접문화와의 접목을 통해 연극의 한계를 극복한다는 점에서 주목을 끌고 있다. 즉, 막이 내려짐과 함께 극중의 시공간이 정지되고 차단돼버리는 연극을 책의 형식으로 기록, 보존한다는 것이 이 책이 갖는 의의라고 할 만하다.

대본 자체로서도 이 「달라진 저승」은 홍수전과 태평천국의 흥망이 이승과 저승, 무대와 객석, 과거와 현재를 넘나드는 劇中劇의 형식 속에 풍자됨으로써, 그를 통해 오늘날 우리시대의 바른 위상을 짐작하게 한다.

「연우무대총서」 제1권으로 엮여졌고, 공연장면 사진은 김문호가 맡았다. 부제는 「저승에서 태평천국의 흥망을 공연하는 도중 생긴 일」.

열화당 / A5 변형 / 68면 / 2000원